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회개하지 않는 죄

(마 11:20-24)

구원을 받았을 때도, 구원을 받은 후에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셨지만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거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주님의 제 2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도시에서 심판을 경고하시며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갱신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마 11:21).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새다를 구약 시대에 악한 도시의 상징이었던 두로와 시돈에 비교하시면서, 만약에 두로와 시돈이 주님의 권능을 보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마 11:23).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도시입니다. 구약에 이보다 더 사악한 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가버나움을 이런 사악한 도시들과 비교하시는 걸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20절). 그것은 가버나움이 주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보았던 고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이 그 도시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책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계시의 양만큼 생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흘리신 피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로, 시돈, 소돔과 고모라,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이 당한 멸망과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죄, 외식의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충성하지 못한 죄, 감사하지 못한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 등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가슴에 안겨서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Unrepentant Sin

(Matt. 11:20-24)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Even when Christians were saved and after they were saved,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m is repentance. The fact that man cannot live without sin is impossible for humans.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repentance is a gospel truth.

Though Jesus was born in Nazareth, by beginning the mission on the earth, he moved to Capernaum, which was like his second home town. Nevertheless, in that city, Jesus warned the people of judgment and fearfully blamed them because they did not repent.

The spiritual renewal and recovery, and God's amazing work begins from our repentance. A real repentance makes people turn from a wrong direction to Jesus. If our thought and value are not biblically changed, we are not able to be born again.

“Woe to you, Korazin! Woe to you, Bethsaida! For if the miracles that were performed in you had been performed in Tyre and Sidon, they would have repented long ago in sackcloth and ashes” (Matt. 11:21).

Comparing Tyre and Sidon were the evil cities in the Old Testament age with Korazin and Bethsaida where they did not repent after seeing many miracles of Jesus. Jesus said that if Tyre and Sidon had seen Jesus miracles, they would surely have repented.

“And you, Capernaum, will you be lifted up to the skies? No, you will go down to the depths. If the miracles that were performed in you had been performed in Sodom, it would have remained to this day” (Matt. 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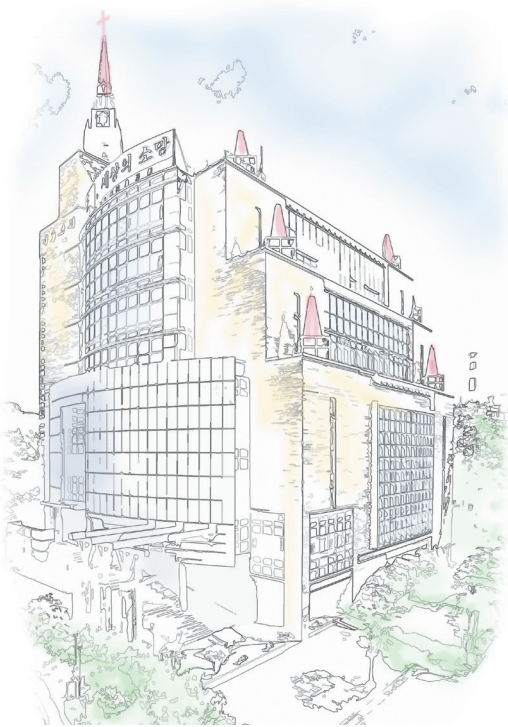
Sodom and Gomorrah plainly showed men they would be corrupted. Nothing would be more evil than these cities in the Old Testament.

Nevertheless, why did Jesus compare such evil cities in Capernaum? “Then Jesus began to denounce the cities in which most of his miracles had been performed, because they did not repent” (v. 20). Because Capernaum was the city in which most of Jesus miracles had been performed and seen. Yet, they did not repent and that city was full of evil sin.

The responsibility for repentance was showed us by God. We are the people who experienced Jesus' suffering and death, what his shed blood means, and how to be saved by His power of precious blood. Moreover, we are the people who have the revelation of Jesus' resurrection. Nevertheless, if we do not repent, we will be judged much greater in comparing with Tyre, Sidon, Comurrah, Korazin, Bethsaida, Capernaum that suffered with pain.

My beloved Christians,

Now, what we have to do is to repent. By checking our sins that we committed before God in order to repent such sins as arrogance, hypocrisy, non-believing God, infidelity, un-thankfulness, commitment in speech and thought, and unloving in holiness, we must actually repent our sins. By repenting, turning toward Jesus, and being embraced in God's arms of love,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receive a wonderful rest and pea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미안마 비전 트립 파송 예배

- 오늘 찬양예배 시 -

2014년도 제 14기 미안마 비전트립팀 파송예배가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있다.

2014 미안마 비전트립팀은 총 10명으로 그 동안 미안마 언어 및 신앙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훈련을 받았으며 파송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11일까지다.

교회 지원과 성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비전트립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 바란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지도: 장석남 목사 / 단장: 최차순 집사
- 단원 : 김순영 김윤숙 문찬희 박권준 박재영 양옥희 이동현 김정균



2014년 1학기 장학금 수여

오리엔테이션: 오늘 오후 4시, 본당 / 장학금 수여식: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4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 차림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48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 자라나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동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전망엘리베이터 시간제 직행 운행

2부 예배 후 30분간

오늘부터 전망 엘리베이터는 만나홀에 가는 노약자를 위해 주일 2부 예배후 30분간 2층에서 8층으로 직행 운행한다. 아울러 모든 엘리베이터 사용은 노약자 및 새가족을 위해 양보하고 교회학교 학생들은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하기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17)

(문 117) 역대기 상하에는 족보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답) 역대기는 주전 5세기 중엽에 에스라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긴 시련 후에 586년부터 539년에 유대인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자기 조국 땅에 새 이스라엘 건설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파괴로 이스라엘은 물질적 소유를 모두 상실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잃어버린 채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언약들과 땅과 영역을 기억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인구의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42,000명 뿐 아니라 포로로 그대로 남아 있기를 원한 90%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어느 족속에 속한 백성인지 알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족보에 대한 관심은 신약시대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족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아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조상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종 믿는 모든 이들 중에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족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기독교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기도와 관련된 용어>

5. 대표 기도 → 기도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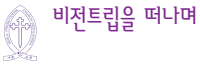
예배 순서 가운데 기도 시간이 되면 예배 인도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000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000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000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안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못된다. 온 회중이 머리를 숙여 무언의 기도를 할 때 한 사람이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할 경우 우리는 이를 '기도 인도'라 부르는 것이 좋다. 기도 인도자는 기도의 대표자가 아니다. 이 기도 인도자는 그와 함께 머리를 숙인 다른 사람들과 분리될 수 없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또는 생각까지도 그들과 결코 분리 될 수 없다. 기도 인도자는 대표로 뽑힌 어느 운동 선수와는 다르다. 그는 대표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며 그와 함께 머리를 숙인 온 회중의 생각을, 즉 그들의 소원을 보다 깊게, 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울러 그 절차를 정리해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기도 인도자가 기도할 때 회중은 결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는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는 대표성이 인정될 수 없다. 만일제사장의 사상은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사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도에 있어서 '대표', '대신'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대표기도', '대신하여 기도...'는 '기도 인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사랑의 예수님 → 사랑의 하나님

기도 서두에 '...하나님' 대신에 '사랑의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등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끝낼 때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 후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는 일차적으로 성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15:16)고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 서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되어 있다. 역시 이 속에도 성부 하나님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기도의 본임을 알아야 한다.

7.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 → 사용불가

기도하는 중에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영원히 존재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표현은 '언젠가는 살아 있지 못할지 모른다' 또는 '아직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 등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극히 제한하는 표현이 된다.



복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미얀마를 향하여 떠납니다



장석남 목사
(비전트립 지도)

미얀마는 인도, 중국, 태국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는 말발굽 모양의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삼각주 분지에 위치하고, 인구는 약 5천만, 기독교 비율은 약 4% 추산됩니다.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에서 발행한 [세계기도 정보](원제, Operation World)는 미얀마를 이렇게 표현하고

군부는 기독교를 제거하려고 애썼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

미얀마 비전트립단의 사역 계획

군사정권이 수도를 이전하기 전까지, 미얀마의 오랜 수도는 양곤(랭군)이었습니다. 이 오래된 도시에 인구 약 5백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교회에서는 이 양곤지역 22개의 가정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비전트립단은 22개 후원교회 중 5개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1일 어린이성경학교를 열고, 미얀마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고 있는 선지동산인 신학교 방문격려, 우물파기 현장방문, 서울교회에서 건축한 교회방문, 22개 후원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서울교회 전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의 열기를 전하여 작지만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미얀마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미얀마 기독교인들(4%)이 박해 아래서도 꺾이고 신실하게 성장하도록
2. 현지 사역자들과 교회사역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3. 미얀마의 3세대와 4세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퍼져있는 명목주의가 사라지고, 부흥의 물결이 몰려오길
4. 종족과 정치, 교리 등으로 분열된 기독교인들간의



화합과 연합과 일치이 이루어지도록

5.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각 선교단체들의 사역이 확장되도록

미얀마 비전트립단을 위한 기도제목

1. 2월3일~11일 까지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통하게 진행되고 질서와 안전 속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2. 사역에 영적인, 문화적인, 물리적인 방해가 없도록
3. 풍토병 등 질병을 잘 이겨내고, 기후와 숙식에 잘 적응하고, 현지교통이 차질 없고 안전하도록
4. 서울교회가 후원하는 가정교회들과 방문하는 가정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5. 미얀마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도록
5. 방문하는 신학교 학생들이 미얀마를 이끌어갈 영적거목으로 성장하도록

있습니다.

「천연자원은 풍부하나 지배자들에 의해서 이처럼 철저히 약탈당하고 파괴된 나라는 드물다. 거대한 티이크숲이 벌채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수출 산업은 아편으로, 라오스와 태국 국경에 있는 소위 황금삼각지대에서 세계의 50%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1942년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 이래로 이 나라에는 평화가 거의 없었다.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하였으나, 소수 종족간의 알력과 중앙정부와의 대립, 군사정권대 민주세력의 대립 등으로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불교는 더 이상 국가의 공식종교가 아니지만 군사정권은 이를 활발하게 장려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반항적인 소수종족들 사이에서는 기독교가 왕성하기 때문에 기독교도들에 대한 상당한 차별이 있다. 거의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은 1966년에 추방되었고,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서 온 기독교 모임에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천국시민 양성

이제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홍재욱 어린이
(유년부 1학년 회장)

유년부에 들어와 한달 만에 갑자기 큰 형님이 된 것 같아요. 주일 아침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전 가방부터 확인해요. 엄마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샷던 예쁜 성경책은 잘 넣었는지, 주일에 공부할 공과책과 한 달 동안 모든 주보파일은 잘 있는지, 그리고 연필은 잘 깎았는지 보고 보고 또 본답니다.

주일에 예수님 뵙고 목사님, 친구들 만나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유치부에 다닐 때에는 선생님들께서 모든 것을 챙겨주셨지만, 이제는 유년부 형님이 되어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어요. 공과공부 시간에는 혼자 공과책을 펴고요, 성경책도 혼자 찾려고 노력해요. 성경 말씀을 찾는 것이 저는 제일 즐겁습니다.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텐데 서울교회 유년부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지난 주일에는 1학년 회장으로 뽑혔답니다. 훌라후프를 목으로 돌리는 저의 특기를 보여주었지요.

이제는 회장으로서 친구들의 모범이 되면서 더욱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울교회 유년부 어린이로 잘 자라겠습니다.

겨울수련회 초대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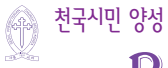
천은은 성도
(청년1부 회장)

“Ad Fontes!(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주제 하에 청년1부 겨울수련회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이번 수련회에는 박노철 담임목사님, 서준권 목사님, 그리고 두 분 전도사님의 특강과 찬양 및 기도회로 이루어진 은혜로운 프로그램과 또래 및 다락방별 모임 그리고 공동체 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교제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겨울수련회가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분주하였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뜻입니다. 서울교회 청년 여러분! 이번 겨울수련회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청년1부에 참여하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주일에 예배만 드리시는 우리교회 모든 청년들까지 이 은혜로운 자리에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청년1부 겨울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BABY SHOWER FOR INTERNATIONAL COUPLE



Binayak Bhandari
(English Ministry)

On 18th January 2014 English ministry (EM) of our church had its first baby shower for an international couple from Nepal who are a regular member since 2007. Baby shower is a way to celebrate the pending or recent birth of a child by presenting gifts to the parents at a party. The shower was held in room 701 of the church building. Pratibha Bhandari (mother to be) and her husband Binayak Bhandari (father to be) are students in Korea and are active members of English ministry. English ministry Pastor, Daniel Kim prayed for the couple and 'child to be born'; for Lord's grace to be upon the mother and baby's health. Nearly two

dozens EM members were present who blessed the couple and their child to be born, and presented gifts for the baby. The baby shower was organized by our ministry's active deaconess Young-Sook Lee. EM winter retreat was also held on the same day.

This baby shower is just one example of the close bond between domestic citizens and the internationals in our church. May the Lord continue to fill our hearts with his everlasting love as we grow together as a community in Him.

영어예배부는 2014.1. 18(토) 701호에서 겨울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수련회중에 네팔에서 온 학생부부(Binayak, Pratibha)를 위해 베이비샤워를 했습니다. 베이비샤워는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축복하고



선물을 주는 파티로 영어예배부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영어예배부의 김다니엘 목사님과 성도들 20여명은 2007년부터 서울교회 영어예배부의 핵심멤버인 반석(한국명)부부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행사는 교회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전도회 주최 바자

-루치아노 최/강남롯데백화점 8층 행사장-
2월10일(월)-13일(목), 4일간

에스더 전도회(회장: 장기숙 권사)에서 숙녀복 브랜드 루치아노 최와 함께 불우이웃돕기 바자를 개최한다. 롯데백화점 강남점 8층 행사장에서 2월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4일간 계속된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호산나 학부모회 주일 식사제공 및 봉사

- 2월 9일 (주일) -

2월9일(주)에 우리교회 부설 호산나 학교 학부모회 어머니들이 성도들의 주일식사를 제공하고 식당봉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당일 식당봉사를 하는 학부모회 어머니들과 만나는 성도들은 밝은 미소로 함께 인사하며 교제를 나누기 바란다.

오늘 신앙강좌부 개강

신앙강좌부(강사 : 원종천 목사)가 오늘 12시30분부터 601호에서 개강한다.

2월 5일(수) 다락방 리더 훈련 개강

동절기에 잠시 방학하였던 다락방 리더훈련이 2월5일(수) 개강한다.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월3일(월) 한국군선교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한다.
- 주간식당봉사 : 모세선교회(22) 호산나 대학 학부모(29)
- 금주의 식사 : 김중철 집사 주성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2014년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유아부	2월 21일(금) ~23일(주일)	서울교회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과 함께라면	양세라 전도사
유년부			나는 하나님 사랑의 통로!	김안성 목사
초등부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최민혁 전도사
중등부	2월 20일(목) ~ 22일(토)	아가페타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노정호 목사
청년부	2월 6일(목) ~ 8일(토)	아가페타운	Ad Fontes (기본으로 돌아가라)	박노철 목사 서준권 목사 장재원 전도사 정대은 전도사
청년2부	2월 28일(금) ~3월1일(토)	아가페타운	Ad Fontes (기본으로 돌아가라)	서준권 목사
신혼가정공동체	2월 22일(토)	서울교회	아름다운 연합	서준권 목사
사랑부	2월 16일(주일)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2월 15일(토)	서울교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임규현 목사 이영우 목사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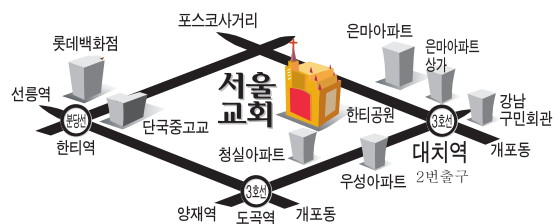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미안마로 단기선교 떠나는 비전 트립팀을 통해 미안마 땅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 우리교회 장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어서 교회와 나라의 기둥같은 일꾼들이 되도록
3. 개강하는 다락방 리더 훈련을 통해 우리교회 다락방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며 치유와 변화의 간증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전 1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